天國人 제조공정 5단계

(마9:27-38)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32.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인 제조공정 5단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천국인으로 제조되는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대답이 진심에서 '천국인'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국인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안돼요.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인'이어야만 합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천국인으로서 한국으로 보내어져 삽니다.

그러므로 '나라사랑'이라는 것은 천국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흔히 자연인들이 한국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행동은 천국인에게는 보내어진 파견장으로서의 한국의 상황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 이 이상이 아닙니다.
나라사랑을 하면 안돼요,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한국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천국인으로서 천국을 사랑하는 자로서 천국의 주재 되시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그분의 뜻에 따라 대처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오직 천국사랑과 하나님사랑으로부터 나머지 모든 행동은 파생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웃사랑도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사랑에서 부수되어지는 열매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천국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천국인이 되려면 다섯 단계의 공정을 지나야 됩니다.
우리가 9장을 쭉 훑어왔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9장 전체가 바로 천국인으로 제조되어지는 다섯 단계의 공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조라는 말이 좀 비유적인 의미가 있지요, 사람에게 있어 제조라는 말은 새사람으로 거듭난다, 재창조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굳이 제조라는 말을 써 봤습니다, 피부에 와 닿게…

이 다섯 단계의 앞 단계가 뭐였는가 하면,
천국인으로 제조되는 첫 번째 단계는 제조될 수 있는 천국인의 원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원자재를 확보해야 제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자재가 중풍병자 사건과 예수님께서 마태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사건을 통해서 원자재가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원자재는 나 자신이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이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 천국인으로 제조될 수 있는 원자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철저하게 있지 않는 한 죄라는 병에 걸린 죄인 때문에 오신 의사인 예수님을 결코 만날 일이 없고 결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천국인으로 제조될 수 있는 원자재는 오직 자나 깨나 '나는 여차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존재'라는 사실을, 죄 값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자, 이 자가 바로 천국인으로써 제조될 수 있는 원자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혈루병 여인으로 드러난 단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모든 관계와 접촉에 대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마음으로 붙잡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할 때 그 생각과 판단과 계획 속에는 반드시 죄가 혈루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계하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게 죄로 물들어버리고 죄로 망쳐지기 때문에, 혈루병 여인이 그 누구와도 그 어떤 물건에도 접촉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어떤 사람과도 같은 자리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지상 위에서 육체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는 겁니다.
이게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천국인으로 제조되어 가는 과정, 죄인임을 아는 것이 원자재로 쓰이고 그 원자재의 두 번째 단계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는 단계입니다.
주님이 보시듯이 내가 나를 볼 때 진짜 죄인인 것을 안다면 마음에서 관계를 끊으세요!
그 일을 해주시는 역사가 십자가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오늘 본문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혈루병 여인이 첫 번째로 접촉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나'가 되는 상태, 천국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은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생길 때 형성이 됩니다.
인격으로 태어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최초의 '나'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며 인격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너'를 어머니로 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머니를 제일 처음 '너'로 보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너'를 만나게 되면서, 어머니를 '너'로 볼 때 아들이 되고, 형이라는 '너'를 만날 때 동생이 되고, 이렇게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서 '나'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주님을 통해서

‘나’가 되는 이 ‘나’가 바로 천국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가 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인격이 태어나는 순간이라면, 주님을 통해서 ‘나’로 태어나는 이것이 천국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인으로 태어나면 하늘나라로 직행해버리는 게 최고로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려두십니다.
이 땅에 살려두실 때 천국인으로써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과정 세 번째 단계가 ‘눈 달아주시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면들이 있어요,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불리신 것이 여기서 처음이에요.
그렇게 부르는데 주님께서 처음에 대꾸를 안 하십니다.
그냥 무리가 따르는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따라 들어갑니다, 끝까지.
따라 들어감으로 무리 속에서 외치던 환경이 주님과 대면해서 일대 일의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능히 행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요 만남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주님께서 처음에 대꾸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확인하시는 겁니다, 몰라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무리 중에 섞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 깜짝 놀라셨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 칭호이니까…
그런데 무리 중에 섞여 있을 때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믿는다’는 대답을 확인하고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확인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세상을 살 때 이미 시각장애가 진행된 상태이고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얼마든지 온전한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일시적인 것일 수 있고, 그냥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한번 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시각장애 상태에 근거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원하는 대답은 주위 사람들, 특히 마태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들이 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상태가 이 사람들이 시각장애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의 시각장애를 고쳐서 눈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로서 자기들 안으로 그 메시아의 왕권으로부터 통치하는 힘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와의 연결을 원하는 것이지요, 연결을.
'당신이 왕으로 오신 분으로써 메시아적 통치력을 나에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얘기죠.
시각장애라는 것은 그 통치력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릇이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들의 첫 번째 관심은 메시아를 만난 것이 기가 막힌 일이고, 메시아를 만나 관계를 맺고 싶은 게 두 번째 관심이고, 세 번째는 메시아를 통해 흘러들어온 하늘의 힘, 메시아로서 주님에게 임하고 있는 하늘의 통치력이 자기들에게까지 연장되는 파이프라인을 원한 것입니다.
그 연장되는 파이프라인의 꼭짓점이 시각장애라는 지점으로 연결되어서 통치력이 임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걸 확인하신 것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와의 연결이었고 메시아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하늘의 파이프라인이 자기들까지 연결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지, 자기가 눈이 멀쩡하게 떠져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번째 단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안으로 들어와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천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혈루병 여인과 같은 단계,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단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로 '나'라는 인격이 태어났습니다, 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너무 보아야 될 게 많습니다.
이 모든 보는 것들을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자연인으로서 집에서 아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연인으로서 아내를 볼 때의 시각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된 뒤로는 예수님께서 아내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스테반 집사님이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 시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를 볼 때, 이전에는 자연인의 시각으로 어머니의 입장에서 봤습니다만 이제는 천국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신 대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력이 나를 통해 자식에게 뻗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게 해주신 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 게 오늘 본문 36절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중에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민중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만 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전체를 볼 때,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천국인이 된 자의 시각, 천국인으로서 태어난 자의 시각, 예수님 때문에 처음으로 '나'라는 인

격이 생겨서 태어난 자의 시각,
이것은 공중이 있고 땅이 있고 공중 위의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중이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얼음장처럼 돼버려서 하늘의 생명의 빛과 행복과 기쁨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얼음장 밑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재벌이 불쌍하게 여겨지십니까, 대단하게 여겨지십니까?
대단하게 여겨지시면 여러분은 천국인이 아니에요.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이 사도바울의 눈에는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제 딴에는 나라를 다스린다고 왕 노릇 하겠노라고 애쓰는 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재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안 믿고 대통령 된 사람이 부럽습니까, 불쌍합니까?
불쌍해 보입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3 아이로써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입시를 치르겠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공부 안 한다고 '저 자식, 사람노릇 못하겠네?' 하며 나의 화를 돋우는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측은하고 그저 안됐고, '이 녀석 마음이 대학보다는 천국에 들어가야 할 텐데' 이런 눈으로 보이십니까?
완전히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내게 돈이 있건 없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려요.
나는 하늘 가지면 돼버린 거예요.
하늘을 가졌으면 됐어요, 그런데 하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전부 얼음장 같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며 살고 있고,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자연인의 상태가 기진하고 힘들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눈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시각이고 이런 시각을 통하여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통치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나가서 혈루병 여인 이전의 상태, 내가 마음대로 만지고 쓸고 닦고 하던 그 상태를 벗어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인이 된 상태에서 나가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사장님을 볼 때, 나에게 연봉을 얼마나 주는 사람인가, 상사를 볼 때 저 상사의 마음에 들려

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도 천국인이 아니면 불쌍히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사할 때 물건 사가는 사람이 어떡하면 물건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만들까, 이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파는 이 옷을 사서 입고 사는 동안에 천국을 알까, 모를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 지는 게 천국인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귀신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헬라어는 코포스라고 하는데 이 코포스는 귀도 못 듣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또 말을 못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귀와 입을 달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귀신들렸다고 말을 합니까?
자, 우리가 눈으로 자식을 보고, 아내를 보고, 직장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봅니다.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생각과 판단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에서 이 생각과 판단의 과정에 누가 끼어들어갑니까?
사탄이 끼어들어 갑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에 보이고 있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귀를 달아주시고 입을 달아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잡혀갈 때에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천국인이 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눈으로 보면서 벌써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말도 달라지겠지요.
귀로 듣는 것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무개가 사업에 성공을 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난 뭐냐?'하며 배가 아파했는데, 들을 때 '아이구, 돈 버는 만큼 믿음은 있나? 믿음 없이 돈 벌면 큰일 날 텐데?'

벌써 이렇게 들려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구 하나님이 또 무슨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인이 되면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추수할 일군입니다.
보는 시각이 불쌍하게 보이니까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대통령 되라고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라고? 아니에요.
부자 되라고 남겨두시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고 대통령 될 바에는 지금 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기가 끔찍하고 무섭지요?
그래도 제 말을 믿으세요.
지금 죽는 게 여러분한테는 최고로 유익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크고 비전이 많아도 그 비전 백 개 천 개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금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당신이 키우고 당신이 부양하는 게 아니니까…
아, 내가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코미디예요.
넌센스고 코미디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인 내가 죽어도 내 아내와 내 자식은 어찌어찌 해서라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실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크는 게 얼마나 불쌍한데…'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크는 바람에 하나님을 빨리 아버지로 모실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아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왜 살려두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추수하라고…
천국인으로써 천국을 모르는 자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불쌍한 시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끌어들이라고 직장에 보내고 학교에 보

내고 대통령도 하게 하시고, 장관도 하게 하시고, 재벌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서울역 앞에서 지게도 지게 하시고, 지게를 지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어들일 모색을 하라고…
지게꾼이 대통령 불쌍히 볼 수 있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동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매스컴에 나오는 비난의 내용을 축약하면 '자기들만의 정치, 귀족정치, 있는 자들의 놀음'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서민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
답답해요,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한 말씀이에요.
추수꾼으로 사세요! 돈이 없는 서민을 위해 살지 말고…
돈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돈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취해서 정치를 하시다가 번쩍 깨니까 이제야 서민이 보이는 거예요, 정권 말기에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민을 위해서 사신다고 해요, 장로님이.
그러지 마시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살지도 말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취해서 살지도 마시고, 추수꾼으로 천국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서민을 위해 살아요? 천국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지, 부자건 가난하건.
장로님 되셔서 세상에 살려두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추수꾼으로 살라는 거예요.
원칙은 추수꾼 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으면 대통령직도 사임하는 게 원칙이지요, 남의 말이니까 쉽게 한다, 당연히 남의 말이니까 쉽게 하지요.
남의 말이라도 쉽게 하면서 하여간 바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건 없건.

여러분, 다섯 번째 단계가 파송에 있습니다, 파송.
천국인으로써 한국에 파송된 것이에요.
이 파송의 단계에서 이 땅에서의 천국인의 모습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9장 말씀들의 제목을 잘 기억하고 내용을 되살리시면서 한번 나에게 적용시켜 보시고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가?
아예 원자재도 아닌 상태가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원자재도 아닌 상태가.

제대로 된 원자재라면 혈루병 여인의 상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혈루병 여인의 상태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면 반드시 눈을 달아주시고, 귀와 입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가운데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내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만나는 자마다.

이렇게 다섯 단계를 날마다 반복해서 온전히 거쳐서 천국인으로 파송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인의 제조 과정 다섯 단계를 온전히 거쳐서 날마다 반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됨으로 천국 추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